

혁신성장 이끌 신산업 스타트업 5년간 1000개 육성

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초격차 분야 R&D 자금 2조 투입
중소기업 50조 맞춤형 자금 지원
관광기업 펀드 5029억 추가 조성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혁신성장을 이끌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발굴·육성하고,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 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추가로 5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속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총 50조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부처 추천과 민간 투자를 통해 확보된 기술력 확보가 가능한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발굴해 육성하기로 했다. 미래 혁신 성장을 위해 주요 초격차 분야를 선정하고 총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등 정책 수단도 투입한다.

정부는 또 연구소·대학 등을 스타트업과 연결해 R&D·실증 등의 지원으로 기술 완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원이 넘는 비상장 기업)을 5개 육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 농업 8대 핵심 기술인 ▲AI 예측 ▲AI 온실관리 ▲온실용로봇 ▲축산 사물인터넷 ▲AI 축사관리 ▲가변관수·관비기술 ▲자율주행 ▲노지 수확 로봇에 오는 2027년까지 총 4000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농업 대상 모태펀드 지원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100억원으로 늘리고, 벤처창업 사업화

자금을 연간 30억원씩 지원한다.

또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광기업 육성 펀드 운용 규모 및 계획을 밝혔다. 관광기업 육성 펀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281억원이 조성돼 지난 5월 말 기준 1442억원(63.2%)이 집행됐다. 관광산업에 1057억원, 공모전 등을 통해 관광공사가 선정한 기업에 258억원이 각각 투자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6년간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추가로 5029억원 조성해 관광산업 지원에 나선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는 우선 일직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12조원을 편성했다. 금리 측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우대보증금리대출'과 추후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고금금리 특례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관련 피해 기업에 운전자금 특례대출을, 납품단가연동제(원정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례대출을 각각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간 부분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한 시장 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써 경영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디 유적, 풍광을 보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K콘텐츠 문화와 합해지지 않으면 경쟁력 있는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가 어렵다"며 "정부가 낭만광·엘레미터·에스케이이터가 잘 갖춰진 시장을 만들어 주면 그 시장에서 거래, 투자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불법 대선자금 의혹' 고리로 이재명 '맹폭'

정진석 "DJ·盧 명맥 유지 어려워"

하태경 "감옥 피하기 어려워 보여"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검은 돈' '석고대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상황 등을 고리로 이 대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모양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대장동의 돈은 검은돈이다. 그 돈이 이재명 측근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이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비대위원장은 "대장동 일당의 검은돈이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씻지 못하는 한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의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재명 대표는 김용 부원장 결백을 믿는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돈을 받은 범인이 밝혀지면 장물을 나는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밝혀질까 두려워 이런 말을 한 것 아니냐"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하태경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도 감옥살이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민주당 안에서 한두 사람이 물러나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쪽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간 분열 가능성을 전망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정부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 대응을 비판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점을 거론하며 "누가 누구에게 총을 들이대시냐"고 꼬집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반(反) 민생' 프레임에 씌우며 공세를 가했다.

정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지역위원장, 당직자, 당원 등이 모여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를 연 데 대해 "민생을 살피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속의 국회를 가져가도 부족할 판"이라며 "예산 국회는 민생의 시작이다. 민주당은 민생의 시간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국힘 69개 당협 조직위원장 선임 조강특위 구성

국민의힘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식인 69개 당원협의회의 조직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했다.

조강특위는 김석기 사무총장(위원장)과 이양수·엄태영 부총장이 당연직이다.

원내에선 배현진(서울 송파구)·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이, 원내에선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과 함인경 변호사가 합류했다.

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낸 소장파 의원이자. 비교적 계파색이 얽은 최 의원은 경기도의원과 경기도당위원장을 지냈다. 총선을 대비해 수도권 당협 정비가 가장 시급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원외 인사인 함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캠프에 합류했으며, 당선인 시절 상근보좌역을 맡았다. 원외위원장

몫하면서 당 사정에 밝은 당료 출신이라는 점이 고려된 인선으로 해석된다.

정진석 위원장은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이를 위한 집권 여당의 확실한 뒷받침을 위해 조강특위를 가동한다"면서 "내후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이른 시일 내 공정하게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되는 배 의원 및 함 위원장의 합류를 두고 당내 일각에선 이번 조직 정비에 '윤심(尹心)'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세 따른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생중계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앞두고 "우리 경제활동과 투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촉진 방안을 장관들이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정부의 소년범죄 대책과 관련,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한 번 조치해 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진 정책들을 좀 내놓고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 그동안 우리가 고금리로 인해 경제가 많이 위축됐다"며 "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 전략을 언급하면서도 "경제가 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좀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다양한 실물 쪽의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권이라는 문제가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만 12세 미만'을 공약했던 점을 거론하며 "한 번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니 일단은 1단계로 13세까지로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원 보호 처분 2년을 갖고는 사회적 범죄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만 13세~14세 사이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단은 만 13세까지 낮춰서 한번 시행해본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임산부 배려 캠페인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임산부는 임신기간 호르몬의 변화로 입덧과 구토, 과도한 피로감, 우울감 등 몸과 마음이 힘들 수 있으며, 특히 걸로 구분이 잘 안되는 **임산 초기**에는 무리한 활동이나 스트레스가 **유산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배려, 우리 모두 함께해요

-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두거나 양보하기**
- 줄서기를 하고 있다면 임산부에게 **순서 양보하기**
- 모두에게 해로운 **담배, 임산부에게는 특히 더 조심하기**
- 직장에서 임산부에게 **무리한 근무**와 스트레스는 **금물**
- **출산 전·후 휴가**와 **단축근무** 신청은 **당연한 권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